

공공도서관 지식교류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Knowledge Sharing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김 영 은 (Youngeun Kim)**

박 지 흥 (Ji-Hong Park)***

초 록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 3년 동안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서 인력 부족, 부실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8년 서울시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와 30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또한 양적 증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 동기가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용 동기와 지식교류의도가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공공도서관 이용자 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강한외적동기, 강한내적동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중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별로 이용자 그룹을 고빈도, 보통, 저빈도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자율성과 관계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정적 영향관계로 나타난 강한외적동기를 상쇄시키고,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봉사과 연관지어 이용자가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거나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기획 초기부터 강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지식교류 시간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지식교류가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Recently, public libraries have increased in quantity, while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regarding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such as lack of librarian manpower and facilities. Additionall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does not correlate to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public libraries, and thus developing various services is needed to maintain the continued use of public libraries. This study examined which types of use motivations affect the intention of knowledge exchange in public libraries when using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It also looked at how the use motivations and the intention of knowledge exchange vary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public library use. According to an online survey of 230 users of public libraries, extrinsic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knowledge exchange. In addition, the higher the frequency of public library use, the higher the needs for autonomy and relatedness were.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knowledge exchange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new service of public libraries by offsetting extrinsic motivation that emerged from by negative influences and promoting intrinsic motivation, autonomy and competence.

키워드: 공공도서관, 지식교류, 지식공유, 자기결정성 이론, 이용동기

Public Library, Knowledge Exchange, Knowledge Sharing, Self-determination Theory, Use Motivation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3499).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kimye93@yonsei.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ihongpark@yonsei.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1년 2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1년 3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3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247-265, 20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1.247>

© Copyright © 2021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을 위한 지식정보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지위는 점차 변화해왔다. 도서관의 양적증가를 살펴보면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67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작은도서관은 6,058곳에서 6,330곳, 6,672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이면서 공적인 정보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작은도서관의 부실 운영, 인력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장덕현, 2018). 또한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보일, 김홍렬, 이보라(2020)는 수도권과 농산어촌 지역 간 작은도서관 운영 수준의 차이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대비 216명이 늘어난 269명을 순회사사로 채용하였다. 전문사서인력을 전국 944곳의 작은도서관에 파견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도서관의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기반시설(SOC) 정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 부분 예산이 2019년 대비 1,216억원 증가하여 2020년 총 2,03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혁신 성장의 기

반을 마련하고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전략 아래 공공도서관의 기반 확충이 주요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용률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2018년 서울시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41.8%, 48.6%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보였으며, 70대 이상의 이용률은 67.7%였다. 반면 공공도서관 인지율은 20대가 97.4%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별개로 공공도서관이 20대의 이용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공공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동기 요인을 분석하여 이용자 간 지식교류가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동기 요인에 주목한다. 최근 학계에서 지식교류의 성과에 대해 다방면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식교류는 도서관과 비도서관 양측 모두에서 중요한 것임을 도출하였다. 도서관의 지식교류 선행연구로는 오픈 사이언스 시대에 대비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김

순, 2019), 대학도서관 사서들 간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신명이, 2006), 지식창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공유공간 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윤미지, 2012) 등이 있다. 도서관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였다. 도서관 사서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업무 현장에서 이뤄지는 지식 공유의 영향 정도를 밝혀내 이러한 현상이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도서관에서도 지식교류는 지식 공유라는 키워드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로 팀 구성원간 지식공유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류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손정미, 2016), 연구자의 자율성, 지식공유,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유현희, 현병환, 2019), 조직 지원인식, 업무몰입, 지식공유의도,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조현정, 김우철, 2019) 등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기업이라는 조직 내 개인들의 지식공유가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업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의 지식교류에 대한 연구는 대학도서관과 기업,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안에서 이뤄지는 지식교류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동기 요인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연구질문 1.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동기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 연구질문 2.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에 대한 동기요인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 의하여 설립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종, 국적, 연령, 성별 등의 개인의 여건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장혜란,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 주체와는 상관없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나현정, 2006).

2.2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은 크게 인지평가이론(CET: Cognitive Evaluation Theory)과 유기적 통합이론(OIT: Organismic Integration Theory)을 통합하여 시작된 이론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해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내적

동기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 즉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정도이다(김아영, 2002). 이 외에도 기본 심리욕구 이론, 인과지향성 이론 등 여러 하위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순례, 2020). 또한 황용철(2014)은 자기 결정이란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외부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 및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적 동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적 동기가 있는데 외적 동기란 개인의 내부에 근원을 둔 내적 동기와는 달리 외부적인 자극에 근원을 둔 것이다. 한 개인이 보상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등 행동 그 자체와 분리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오순애, 2001).

Ryan과 Deci(2000)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본 심리욕구 이론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무동기부터 내적 동기까지 동기 요인을 연속적으로 설명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외적 동기와 이러한 동기의 내재화를 설명하기 위해 두번째 하위이론인 유기적 통합이론을 도

입하였다. <표 1>은 자율성에 따른 동기 유형을 보여주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율성의 정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기결정성 이론은 기본 심리욕구 이론의 중요 요건인 자율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Ryan과 Deci(2000)가 분류한 동기 유형을 살펴보면 첫번째 무동기는 행동 의사가 결여된 상태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외적 조절은 외적 동기 중 자율성이 가장 없는 상태로 개인은 이 상태에서 외적 보상이나 요구 상황 충족과 같이 외부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행동한다(DeCharms, 1972). 만약 처벌이나 보상과 같은 외부적 원인이 사라진다면 행동은 연속되지 않는다. 세번째 부가된 조절은 어떤 규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막 내면화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죄책감이나 불안을 피하거나 자아의 자존심 향상을 위해 행하는 비교적 통제된 형태의 행동을 말한다. 네번째 확인된 조절은 보다 자율적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의 외적 동기로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목표에

<표 1> 자기결정성과 동기유형(Ryan & Deci, 2000, 72)

행동	비자기결정적 <----->					자기결정적
동기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조절양식	무조절	외적 조절	부가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조절
인지된 인과 소재	없음	외적	약간 외적	약간 내적	내적	내적
관련 조절 과정	무의도 무가치 무능력 통제결여	외적 제약에 따름 외적 보상 및 처벌	자기통제 자아개입 내적 보상 및 처벌	개인의 중요성 의식적 가치부여	일치성 자각 자기와의 통합	흥미 즐거움 내재적 만족감

가치를 반영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통합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 가장 자율적인 형태로 확인된 규제가 완전히 자아에 동화되었을 때 일어난다. 확인된 가치들이 자신의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행동 자체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아닌 분리 가능한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로 분류되고 있으나 내재적 동기와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마지막 내재적 조절은 자기결정성 요소인 자율성이 가장 높은 동기 유형으로 행위 자체의 본질적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조절은 매우 자율적이며 자기 결정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한편 기본 심리욕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유능성과 관계성도 존재하는데, Deci와 Ryan(1991)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자율성은 어떤 행위에 동반되는 자기 의지의 감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오지현, 2015). White(1959)는 유능성이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이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고 하였다. 즉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며 이를 촉진하는 능력, 숙련도, 효율성 등의 개념을 포괄한다. 관계성은 한 사람이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가깝게 연결되고 싶어하는 것으로(Reis et al., 2000), 타인과의 연결로부터 기쁨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관계성은 개인의 동기 부여와 목표 달성에 강하게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외적 동기의 내적 동기화라는

내적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yan & Deci, 2000).

2.3 지식교류의도

지식은 개인, 팀, 조직 전체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 아이디어 및 전문 지식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을 조직 구성원이 서로 공유할 때 이뤄지는 것이 지식 교류이다(Bartol & Srivastava, 2002). 오늘날의 지식 교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며, 지속적인 지식 관리는 조직의 혁신을 촉진하고 조직의 성공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Nonaka & Takeuchi, 1995). Blair(2002)는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은 지식 이상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교류에 출판기록정보를 통하지 않고, 정보요구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형성되는 개인과 개인의 대화 및 그와 같은 형태의 정보전달(사공복회, 1984)이란 의미를 적용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는 개인과 개인의 대화 및 도서관 프로그램(인문학 특강, 독서 토론, 교양 강좌 등)의 참여 속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기결

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동기 요인을 검증하고,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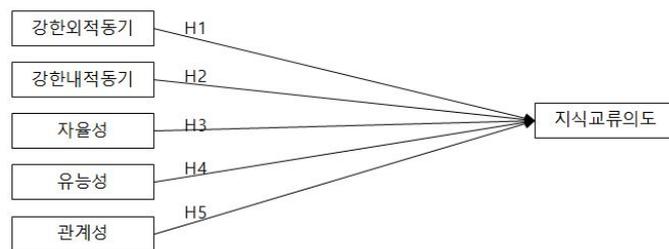
자기결정성 이론의 무동기부터 내재적 동기까지 6요인 모형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외적동기와 내적동기의 이분법적 구조가 적합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따라(박병기, 이종욱, 홍승표, 2005), 이용동기를 강한외적동기와 강한내적동기로 구분하여 가설(H1~2)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로서 행동의 원동력이다(김아영, 2008).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는 인간은 활동 과정에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즐겁게 몰입하기 때문에 이는 곧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정수정, 최나야, 2017).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 동기 중 내적 동기가 인간의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하재엽, 2020).

이러한 연구 등에 미루어 동기 요인이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성 요인이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가설(H3~H5)을 설정하였다. 문헌에서 확인하였듯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동기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 결과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Ryan & Deci, 2000). 김아영(2008)도 자기결정성 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개인의 학습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지식공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정은지, 김성용, 안성익, 2016). 이에 자기결정성 요인과 지식교류의도가 서로 영향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2020년 11월 20



<그림 1> 연구모형

- H1: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강한외적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강한내적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자율성은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유능성은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관계성은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2일간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서와 기록관리, 대학교 커뮤니티 등 직업적, 개인적으로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230건으로 230건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3 측정도구

설문지는 공공도서관 이용동기 12개, 자기결정성 요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 5개씩 총 15개, 지식교류의도 6개, 인구통계학적 질문 6개로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표 2〉 참조). 설문지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측정하는 요소에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직업,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공공도서관 만족도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요인 및 종류별 이용동기 요인이 지식교류의도와 관계에서 갖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영역	측정변수	세부 내용	참고문헌	문항수
도서관 이용	방문 빈도, 만족도		-	2
지식교류의도	정보 공유, 책추천, 강좌추천, 서비스 공유, 정보 수용, 지식 제공		(신명이, 2006) (김현경, 강수돌, 2015)	6
도서관이용동기	강한내적동기	즐거움, 재미, 보람, 도서관 선호, 개인의 성장,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박경숙, 2015) (이병기, 2015)	6
	강한외적동기	타인의 인정, 권유, 대화 주도, 수수료, 강좌 수강, 과제 해결	(박경숙, 2015) (이병기, 2015)	6
자기결정성요인	자율성	이용 선택 및 조절, 콘텐츠 선택, 자발적 및 자유로운 이용	(Wilson et al., 2006) (이명희, 2008) (서은혜, 이효주, 박성민, 2018)	5
	유능성	적절한 및 효율적 이용, 성취감, 정보 습득, 과제 해결	(Wilson et al., 2006) (이명희, 2008)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오지현, 2015)	5
	관계성	타인과 대화 및 교류, 팀워크 및 협력과 신뢰, 타인에 대한 관심	(Wilson et al., 2006) (이명희, 2008) (이성인, 2020) (김현경, 2015) (서은혜, 이효주, 박성민, 2018)	5

4. 연구결과

4.1 표본 특성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총 230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았으며, 남성 38명(16.5%), 여성 192명(83.5%)으로 여성의 응답비율이 남성보

다 훨씬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138명(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56명), 40대(29명), 50대(5명), 60대(2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이 112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학교 재학이 86명(37.4%), 대학원 재학 이상이 27명(11.7%), 고졸 이상이 5명(2.2%) 순으로 분포를 이뤘다. 직업 분포는 대학생이 86명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230)

구분	구분	응답(명)	구성 비율(%)
성별	남성	38	16.5
	여성	192	83.5
연령	20대	138	60
	30대	56	24.3
	40대	29	12.6
	50대	5	2.2
	60대	2	0.9
최종 학력	고졸 이상	5	2.2
	대학교 재학	86	37.4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112	48.7
	대학원 재학 이상	27	11.7
직업	대학생	86	37.4
	대학원생	8	3.5
	사무/기술직	59	25.6
	자영업	3	1.3
	판매/서비스직	5	2.2
	전문직	29	12.6
	무직/은퇴	17	7.4
	기타	23	10
도서관 이용 빈도	일주일에 1회 미만	102	44.4
	일주일에 1회	47	20.4
	일주일에 1~2회	40	17.4
	일주일에 3~4회	20	8.7
	거의 매일 이용한다	21	9.1
도서관 이용 만족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1	0.4
	불만족스럽다	7	3
	보통이다	88	38.3
	만족스럽다	109	47.4
	매우 만족스럽다	25	10.9

(37.4%)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기술직 59명(25.6%), 전문직 29명(12.6%), 기타 23명(10%), 무직/은퇴 17명(7.4%), 대학원생 8명(3.5%), 판매/서비스직 5명(2.2%), 자영업 3명(1.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공도서관에 일주일에 1회 미만(44.4%) 방문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20.4%), 일주일에 1~2회(17.4%), 거의 매일 이용한다(9.1%), 일주일에 3~4회(8.7%)의 빈도로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였다. 또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스럽다(47.4%)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38.3%), 매우 만족스럽다(10.9%), 불만족스럽다(3%), 매우 불만족스럽다(0.4%)의 순서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독립변수(이용동기, 자기결정성 요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을 실시하였으며, varimax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모든 측정 도구의 요인적재량이 0.50 이상인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이용동기 요인 12개 항목 중 0.355로 요인적재값이 낮게 나온 강한외적동기(과제 해결)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 요인 15개 항목 중 0.485로 요인적재값이 낮게 나온 유능성(과업 해결) 문항과 초기 연구 설계와 적합하지 않은 유능성(정보 습득) 문항을 제거하였다. 총 3개의 문항을 삭제하였고, 전체 2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 참조). KMO값은 .898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5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누적 분산이 64.603%로 나타나, 구성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강한외적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0.904, 강한내적동기의 Cronbach's α 계수는 0.907, 자율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0.864, 유능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0.818, 관계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0.897로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3 가설 검증

가설(H1~H5)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평균점수와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를 지식교류의도로, 독립변수를 강한외적동기와 강한내적동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1.178$, $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약 32.2%(수정된 R 제곱은 30.7%)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36으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

〈표 4〉 이용동기 및 자기결정성 요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Eigen-value)	신뢰계수(Cronbach's α)
강한외적동기	타인의 인정	.840	1.561	0.904
	대화 주도	.811		
	타인의 권유	.761		
	프로그램 유료증	.674		
	강좌 수강	.606		
강한내적동기	즐거움	.831	8.150	0.907
	재미	.792		
	보람	.760		
	시간을 보내기위해	.751		
	도서관 선호	.620		
	자신의 성장	.618		
자율성	이용 방법 선택	.816	1.211	0.864
	이용 시간 조절	.781		
	콘텐츠 선택	.670		
	자발적 이용	.584		
	자유로운 이용	.568		
유능성	적절한 이용	.656	1.055	0.818
	성취감	.626		
	효율적 이용	.565		
관계성	타인과 대화	.819	5.235	0.897
	타인과 교류	.781		
	팀워크 달성	.743		
	협력과 신뢰 달성	.646		
	타인에 대한 관심	.599		
표본적절성의 KMO		0.89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819.104
		자유도		276
		유의확률		.000

〈표 5〉 분석 결과(N = 230)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VIF
		B	se	β			
지식교류의도	(상수)	0.001	0.051	-	0.024	0.981	-
	강한내적동기	0.381	0.055	0.381	6.875**	0.000	1.103
	자율성	0.330	0.057	0.323	5.825**	0.000	1.012
	유능성	0.174	0.062	0.156	2.083*	0.006	1.016
	관계성	0.080	0.056	0.080	1.436	0.152	1.012
	강한외적동기	-0.069	-0.057	-0.067	-1.217	0.225	1.011

F=21.178(p<.001), R 제곱=.322, 수정된 R 제곱=.307, D-W=2.036

*p<.01, **p<.001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강한외적동기 ($\beta = -0.067, p > 0.05$)와 관계성($\beta = 0.080, p > 0.05$)은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한내적동기($\beta = 0.381, p < 0.001$)와 자율성($\beta = 0.323, p < 0.001$), 유능성($\beta = 0.156, p < 0.01$)은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도출된 회귀모형을 통해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증가할수록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한내적동기란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이 이용자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처럼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자기 자신 내부에 있는 것이며, 자율성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이므로 본인의 의지대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그 안에서 지식교류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지식교류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Ryan(1982)이 자율성을 자기결정성의 가장 핵심 동기로 뽑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이 결합하여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능성은 주변으로부터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용하는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강한외적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도서관은 특정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전체 응답자 중 약 84%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처럼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게 하는 과제나 보상과 같은 어떤 외부적 요인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관계성 또한 응답자들이 공공도서관 내에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내의 다른 시설들이 공공도서관의 커뮤니티 활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면 공공도서관 외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어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도서의 대출·반납 외에 교육·문화·여가 활동과 관련된 다른 서비스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을 <표 6>과 같이 채택하였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번호	가설	결과
1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강한내적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강한외적동기는 지식교류의도에 부(-) ²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자율성은 지식교류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유능성은 지식교류의도에 정(+) ¹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관계성은 지식교류의도에 부(-) ²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4 공공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른 이용동기 및 자기결정성 요인과 지식교류의도의 평균 차이

추가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이용동기 및 자기결정성 요인과 지식교류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표 7〉 참조). 이용빈도에 따라 '일주일에 1회 미만'에 답한 이용자는 저빈도 이용자로, '일주일에 1회' 및 '일주일에 1~2회'에 답한 이용자는 보통 이용자로, '일주일에 3~4회' 및 '거의 매일 이용한다'에 답한 이용자는 고빈도 이용자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해당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조사하였다. 본 분석의 구분 기준은 공공도서관 이용빈도로 해당 집단 내에 관측치가 3개 이상

이기 때문에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빈도에 따라서 강한내적동기(F=6.961, p<0.01), 관계성(F=8.037,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인 강한외적동기(F=1.847, p>0.01), 유능성(F=0.203, p>0.01), 지식교류의도(F=2.336, p>0.01)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율성은 p값이 0.057로 p<0.05에는 부합하지 않아 유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0.05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한내적동기는 저빈도 이용자 대비 보통 및 고빈도 이용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성 역시 저빈도 이용자 대비 보통 및 고빈도 이용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표 7〉 이용빈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강한내적동기	저빈도(a)	102	-0.25	1.01	6.961*	0.001	a<b,c
	보통(b)	87	0.22	0.80			
	고빈도(c)	41	0.15	0.86			
관계성	저빈도(a)	102	-0.26	0.85	8.037**	0.000	a<b,c
	보통(b)	87	0.14	0.99			
	고빈도(c)	41	0.34	0.84			
강한외적동기	저빈도(a)	102	-0.11	0.76	1.847	0.160	-
	보통(b)	87	0.02	1.00			
	고빈도(c)	41	0.22	1.08			
자율성	저빈도(a)	102	-0.10	0.99	2.907	0.057	-
	보통(b)	87	0.18	0.73			
	고빈도(c)	41	-0.13	1.00			
유능성	저빈도(a)	102	0.00	0.86	0.203	0.816	-
	보통(b)	87	0.03	0.81			
	고빈도(c)	41	-0.07	0.84			
지식교류의도	저빈도(a)	102	-0.15	0.95	2.336	0.099	-
	보통(b)	87	0.13	0.93			
	고빈도(c)	41	0.11	0.88			

*p<.01, **p<.001

다. 즉,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율성이 높게 내재된 강한내적동기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설에서 기각되었던 관계성이 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와 지식교류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성 이론 상의 개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개인의 의지와 태도가 강하게 반영될수록 공공도서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식교류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의 영향 관계를 보인 강한외적동기를 상쇄시키기 위해 정(+)의 영향 관계를 보인 이용자들의 강한내적동기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진행해오던 공공도서관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에 마련된 봉사 관련 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봉사활동은 도서관 청소나 서가 정리 등 단순 작업으로 이뤄져 있다. 1365자원

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봉사활동 분야를 이용자들의 지식교류와 관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는 활동 분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도서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적으로 보인다면 이용자들의 보람과 성취감 등 강한내적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회성 혹은 장기간 진행되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강의가 종료된 후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면 지식교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많은 현 재로서는 이용자들이 비대면 대출, 반납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처리 속도가 더디어 도서관이 자신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 측면에서의 자율성, 유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조사된 표본에 20대와 30대,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성별,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성별, 연령대별로 집단을 고르게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한다면 본 연구보다 좀 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도서관 운영, 타 기관과의 협력, 평가 등 기관 측면에서 이루어졌거나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처럼 관종이 다른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벗어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집중한 연구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경영학계에서 조직의 성과 중 하나로 쓰이던 지식공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지식교류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였다. 지식은 사용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김효정, 한상설, 2011) 정보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매개로 지식이 공유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 간, 이용자와 사서 간 등 양방향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들의 지식 공유를 질적으로 보장

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복합 문화공간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근거가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용빈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들의 내적동기를 촉진하거나,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해 개인의 지식과 역량과 높일 수 있을 것 이란 기대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보일, 김홍렬, 이보라 (2020).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3), 157-175.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157>
- 김순 (2019). 오픈 사이언스 시대에 대비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정보관리학회지, 36(1), 7-30.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1.007>
-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한국교육심리학회, 16(4), 169-187.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현경 (2015). 조직 공정성 및 커뮤니케이션 기풍 인식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조직관리전공.
- 김현경, 강수돌 (2015). 커뮤니케이션 풍토가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0(4), 405-433.
- 김효정, 한상설 (2011). 인지된 즐거움, 위협, 유용성이 지식공유, 신뢰,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년도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49-156.
- 나현정 (2006).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 인사 재정체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학과.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 박경숙 (2015). 자기결정성동기 및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과흥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 (2005).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 사공복희 (1984). 연구활동에 있어서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학회지, 1(1), 127-145.
- 서울도서관 (2018). 2018 서울시민의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
- 서은혜, 이호주, 박성민 (2018). 대한민국 공무원의 동기유형과 조직시민행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1), 145-185.
- 손정미 (2016). 팀 구성원간 지식공유가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류체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신명이 (2006). 대학도서관 사서들 간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순애 (2001).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동기 유형.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 오지현 (2015). 스포츠 참여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즐거움과 지속적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학과.
- 유현희, 현병환 (2019). 연구자의 자율성, 지식공유,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0), 115-126.
- 윤미지 (2012). 지식창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공유공간 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명희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이병기 (201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11-332.
- 이성인 (2020). 학교도서관 이용 동기가 도서관 서비스 품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을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학과.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1.051>
- 이순례 (2020).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한국교육포럼), 10(1), 1-23.
- 장덕현 (2018).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과 과제: 부산광역시 K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73-91. <http://dx.doi.org/10.16981/kliss.49.4.201812.73>

- 장혜란 편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 협회.
- 정수정, 최나야 (2017). 초등학생 읽기동기 척도 개발 연구. 초등교육연구, 30(4), 151-187.
- 정은지, 김성용, 안성익 (2016). 자기효능감 및 주도적성격이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교환이데올로기 조절효과 중심. 2016년도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441-457.
- 조현정, 김우철 (2019). 조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지식공유의도,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1(2), 165-194.
- 하재엽 (2020). 자기결정성 이론의 동기유형에 따른 공공스포츠조직 직원의 지식공유, 암묵적 지식공유 및 지식보류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학과.
- 황용철 (2014). 서비스 브랜드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성에 의한 구매동기가 인지부조화,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마케팅논집, 22(4), 175-197.
- Bartol, K. & Srivastava, A. (2002). Encouraging knowledge sharing: the role of organizational reward systems.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 Studies*, 9(1), 64-7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Blair, D. C. (2002). Knowledge management: hype, hope, or help?.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12), 1019-1028. [10.1002/asi.10113](https://doi.org/10.1002/asi.10113)
- DeCharms, R. (1972). Personal causation training in the schoo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95-113. <http://dx.doi.org/10.1111/j.1559-1816.1972.tb01266.x>
-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8(4), 237-288.
- Nonaka, I. & Takeuchi, H.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9(4), 284. [https://doi.org/10.1016/0024-6301\(96\)81509-3](https://doi.org/10.1016/0024-6301(96)81509-3)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http://dx.doi.org/10.1177/0146167200266002>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dx.doi.org/10.1037/0003-066X.55.1.68>
- Ryan, R. M. (1982). Control &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50. <http://dx.doi.org/10.1037/0022-3514.43.3.450>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 <http://dx.doi.org/10.1037/h0040934>
- Wilson, P. M., Blanchard, C. M., Nehl, E., & Baker, F. (2006). Predicting physical activity and outcome expectations in cancer survivors: an application of Self Determination Theory. *Psycho Oncology: Journal of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Behavioral Dimensions of Cancer*, 15(7), 567-578. <https://doi.org/10.1002/pon.99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 H.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Operation of Public Small Libraries in K District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73-91. <http://dx.doi.org/10.16981/kliss.49.4.201812.73>
- Ha, J. Y. (2020). Motivations of sport public organization employees to share or withhold knowledge: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Hwan, Y. C. (2014).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etermination, Cognitive Dissonance and Attitude in The Service Brand Choice."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2(4), 175-197.
- Jang, H. R. ed. (2002).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Jang, K. A., Lee, J. Y., & Han, K. S. (2011).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Career-Aspirations Among Middle Stud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Korean Education Practice Research Society(The Korean Education Forum)*, 10(1), 1-23
- Jeong, S. J. & Choi, N. Y. (2017). Development of Reading Motivation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0(4), 151-187.
- Jo, H. J. & Kim, W. C. (201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Work Engagement, Knowledge Sharing Intention and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21(2), 165-194.
- Jung, E. J., Kim, S. Y., & Ahn, S. I. (2016). Effects of Self-efficiency and Leading Character on Intention of Knowledge Sharing: Focusing on the of Exchange Ideology Control Effect. *Proceeding of the 2016 Conference of the Journal of Korea Management*, 441-457.

- Kim, A. Y. (2002).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6(4), 169-187.
- Kim, A. Y. (2008). The Development of Academic Motiv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4(1), 111-134.
- Kim, B. I., Kim, H. R., & Lee, B. R. (2020).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157-175.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3.157>
- Kim, H. J. & Han, S. S.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Joy, Risk, and Usefulness on Knowledge Sharing, Trust, and Intention of Continuous Use. *Proceeding of the 2011 Conference of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149-156.
- Kim, H. K. & Kang, S. D. (2015). The Effect of Perceived Communication Climate on Knowledge Sharing Intention. *Korea Business Education Review*, 30(4), 405-433.
- Kim, H. K. (2015). (The)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justice and communication climate on knowledge sharing intentio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Graduate School, Korea.
- Kim, S. (2019). University Library's New Research Support Service Focusing on Scholarly Communication in Open Science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7-30.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1.007>
- Lee, B. K. (2015). A Study on the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of Reading Motivation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311-322.
- Lee, M. H. (2008)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 Lee, S. I. (2020). The influence of school library use motivation on the library service quality perception: a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1.051>
- Lee, S. R. (2020).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Factors on Subjective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petency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Chosum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rea.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2019 Small Libraries Operation Survey Report.
- Na, H. J. (2006). 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ir

- administration, personnel affairs and financial systems.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 Oh, J. H. (2015). The impact of sport participant'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on enjoyment and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 Oh, S. E. (2001). New motivational types between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 Park, B. G., Lee, J. U., & Hong, S. P. (2005). Reconstructing the classificatory pattern of Learning motivation proposed by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9(3), 699-717.
- Park, K. S. (2015).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n student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ubjects interes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rea.
- Sakong, B. H. (1984). Informal Communication in Research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1), 127-145.
- Seo, E. H., Lee, H. J., & Park, S. M. (2018). An Empirical Study of Motivati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in the Korean Public Sector: With a Focus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9(1), 145-185.
- Seoul Metropolitan Library. (2018). A Survey Report on the Use of Libraries.
- Shin, M. L. (2006). A Study of Factor Affecting in Knowledge Sharing between University Librarian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rea.
- Son, J. M. (2016). Effects of knowledge sharing among team members on team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tion exchange system.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 The Libraries Act. Chapter 17706.
- Yoon, M. J. (2012). Assessing a potential of university library information commons for facilitating knowledge creation.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Korea.
- Yu, H. H. & Hyun, B. H. (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Researcher's Autonomy, Knowledge Sharing,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115-126.

